

2026 년 3 월 5 일

## 고려아연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아홉 번째 서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주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는 고려아연이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오는 2026 년 3 월 24 일 개최 예정인 제 52 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번 서한을 통해 주주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가 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이하 "영풍")이 제시하는 방향과, 지난 수십 년간 주주 여러분과 함께 축적한 기술 경쟁력과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광물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당사의 전략 사이에서,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사는 원칙에 기반한 경영과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시한 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당사가 일관된 전략 아래 다음 도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판단에 참고하실 주요 사항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증된 경영성과와 실행역량

고려아연은 지난 51 년간 독자적인 제련 기술과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 년 연결 기준 매출액 16 조 5,812 억 원, 영업이익 1 조 2,324 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44 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아연 제련 수수료(TC)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어려운 업황 속에서 달성한 성과로, 당사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운영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당사는 고도화된 회수 기술을 활용해 희소금속과 귀금속 등 고부가가치 금속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아연 사업의 수익성 하락 압력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동시에 중장기 성장 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는 회사 전체 이익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국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를 위한 전략 사업 'Project Crucible' 또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엄격한 자본 배분 원칙,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한 프로젝트 수행 역량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입니다.

반면, 영풍은 2025 년에 연결 기준 약 2,592 억 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며 3 개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10 여 년간 환경 관련 법령 위반과 제재, 조업정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일부 경영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K 역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기관투자자들에 상당한 손실을 발행시킨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관련 사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자자에 대한 수탁자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에 반해 고려아연은 지난 10 년간 국내외 동종 기업과 비교해 총주주수익률(TSR), 수익성, 현금창출력 측면에서 일관되게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안정적인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국내 상장사 가운데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안정성과 견조한 재무역량, 그리고 검증된 전략 실행력은 Project Crucible 의 성공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며,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노력**

### ***“지배구조 강화와 소수주주 권익 보호”***

고려아연은 그간 주주서한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선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2025 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당사는 거버넌스 기준을 한층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 1. 거버넌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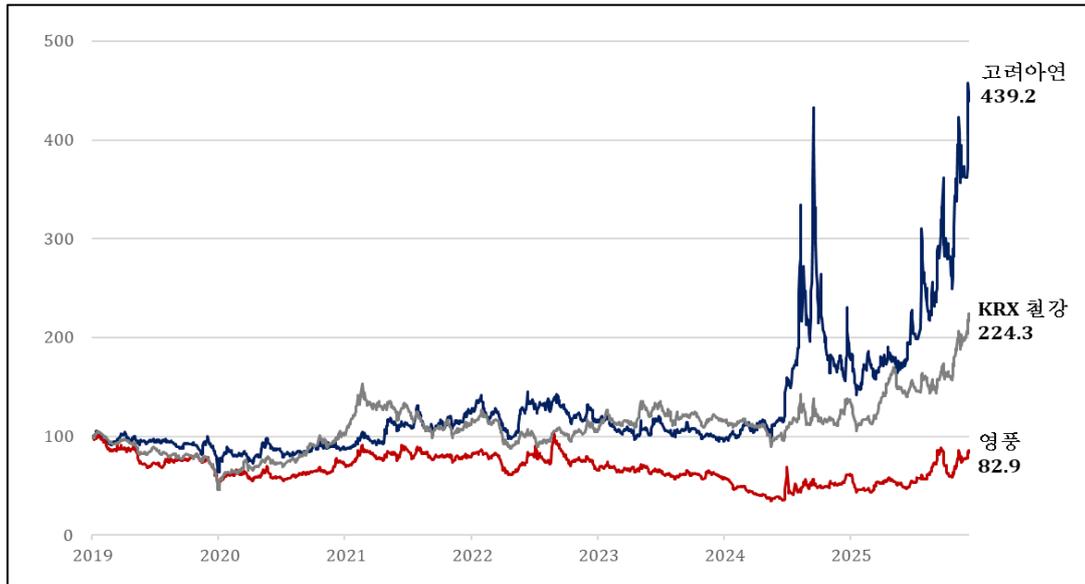
고려아연은 지난 1 년간 이사회 구조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 현재 이사회는 사외이사 비중이 68%로, 2025 년 기준 국내 상장사 평균(51%)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5 년부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여성 사외이사와 외국인 이사를 추가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했습니다.
- 2025 년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이사회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는 2026 년 이사회 운영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투자자의 권고를 반영하여 2025 년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전략과 투자에 대한 사전 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 2025 년 한국거래소(KRX) 지배구조 보고서 기준 핵심 지표 준수율은 80%로 상장사 평균(55%)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26 년에는 100% 준수가 예상됩니다.
- 또한 2025 년 임원 보수체계를 재점검하여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성과 연동 보상과 중장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영성과와 주주가치 창출 간의 정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 2. 주주환원 강화

고려아연은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2024 년 총주주수익률(TSR)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별도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 주주환원 정책을 '연결 기준 3 개년 평균 총주주환원을 최소 40%이상 유지' 로 변경 및 상향했고, 세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고려해 2025 년 11 월 결산 배당금(주당 20,000 원)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주주 여러분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 아울러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 총 204 만 주를 2025 년 6 월과 9 월, 12 월 세 차례에 걸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당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효과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가 추이 (2019.03.22-2026.02.28)]**


시작 기간: 최윤범 회장 대표이사 취임 일자

**3. 주주소통 강화와 밸류업 추진**

고려아연은 주주 및 투자자와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 2024년 중장기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환원 확대와 수익성 개선, 거버넌스 고도화 등 주요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C-레벨 투자자 미팅은 2023년 20회에서 2024년 54회, 2025년 81회로 크게 늘렸으며, 이를 통해 주요 전략과 경영 방향을 설명하고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 2025년 9월에는 밸류업 이행 현황을 공시해 실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당사는 그간 추진한 거버넌스 고도화와 소수주주 권익 보호 노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진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제도화하고,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입니다. 또한 주주 친화와 권리 보호 중심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1. 임의적립금 9,176 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지속적인 분기배당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는 임의적립금 9,176 억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MBK 와 영풍 측이 이미 제안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는 3,924 억 원과 비교해 크게 확대된 규모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번 조치가 재무 건전성과 자본 운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주주환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2.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소수주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3.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입니다. 의결권 행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보다 폭넓은 주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4.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개정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구성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안건입니다.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5.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 명확히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6.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분기배당 자원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분기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배당 정책 운영의 유연성과 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7.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8.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사회는 이사 보수 한도를 기존 100 억 원에서 120 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과 임원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중장기 인센티브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된 한도는 경영성과와 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에 연동되는 보상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이사회 내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치입니다.

이 외에 이사회는 소수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아래 안건들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9.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개정 상법에 따라 선제적으로 분리 선임 감사위원 수를 1 인에서 2 인으로 확대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이사회는 본 안건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지지합니다.

### **10. 집중투표에 따른 이사 5 인 선임의 건**

대규모 상장회사인 당사는 개정 상법에 따라 2026 년 9 월 10 일까지 분리 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2 인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유미개발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5 인을 선임하고 향후 추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위해 이사회 1 석을 유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5 인을 선임하는 유미개발의 제안을 지지하며, 현 시점에서 YPC·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6 인 선임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추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2026 년 9 월 10 일 이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하며 상당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에 불필요한 재무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주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까지 소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유미개발이 제출한 안건을 지지하며 최윤범 회장과 황덕남 이사를 재선임 하기 위해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통합 제련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소수주주인 Crucible JV LLC 는 Walter Field McLallen 후보를 신규 이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당사는 각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위 후보자들이 당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려아연 및 Crucible JV 추천 이사 후보 3 인]**

후보자	직위	추천근거
최윤범	사내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산제련소의 공정 운영부터 해외 자회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련소 설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 이끌 수 있는 전문성 보유</li> <li>· 제련 설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과 핵심 사업에 대한 높은 기술운영 이해도 보유</li> <li>·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 및 신사업 비전을 수립하고 핵심 인재 선발 및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 경쟁력 고도화 기여</li> <li>· 경영진, 기술·영업 조직 및 현장 인력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연속성과 성장 전략의 일관된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연결 축 역할 수행</li> </ul>
황덕남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적 이사회 체계 확립에 핵심적 역할 수행</li> <li>· 이사회 중심의 감독 기능 및 견제균형 거버넌스 체계 강화</li> <li>·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이사회 심의 운영 경험 보유</li> <li>· 재선임 시 이사회 리더십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거버넌스 개혁 기반 확보 가능</li> <li>·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사회 운영 원칙의 일관된 유지 능력 보유</li> </ul>

후보자	직위	추천근거
Walter Field McLallen	기타 비상무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사모투자, 구조조정 및 대규모 투자 구조 설계 분야에서 35 년 이상의 글로벌 경력 보유</li> <li>· 프로젝트 금융, 자본 조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성 보유</li> <li>· 미국 상장사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경험과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장 역임 경력 보유</li> <li>· 자본 배분의 규율, 성과연동 보상체계 및 이해상충 관리에 대한 실무적 통찰력 보유</li> <li>· 회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에 부합하는 국제적 금융 관점 제공 역량 보유</li> </ul>

한편, 이사회는 YPC·영풍·MBK 측이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장기적 안정성과 주주가치 보호 관점에서 아래 안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 **11.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사회는 주식 유동성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동일한 안건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미 가결되었으며, 현재 그 효력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과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영풍·MBK 측이 스스로 제기한 법적 절차를 철회하여 기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소모적인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이미 가결된 결의의 신속한 이행이 주주가치 측면에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주식 액면분할이 일반적으로 유동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동일 안건에 반대했고 이후 소송 제기로 집행이 정지된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사회는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를 별도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특정 행위에 한정되는 선택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포괄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체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충실의무와 수탁자로서의 책임이 모든 경영 판단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배구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이유로 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13.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사회는 집행임원제 도입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조직 구조의 중첩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경영 체계는 전략을 수립하는 주체가 그 실행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전략과 집행의 책임이 분리될 경우 감독과 실행 간의 연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략적 연속성과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경영진이 회사 성과에 대해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통합적 리더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14.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사회는 주주총회 의장 변경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요 전략과 경영 현안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사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경영진이 의장을 맡는 것이 질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형식적인 역할 분리보다는 실질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주주 여러분의 이해와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사회 판단입니다.

### **15.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YPC, 영풍 및 MBK 가 제안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채택된 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회장의 상근 근무와 금속 제련, 정광 마케팅 및 원료 조달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전문성, 그리고 40년이 넘는 헌신적인 근무와 경영 기여를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회사의 지배구조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동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16.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본 개정안은 이사회 소집 통지를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본 안건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충실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연성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사가 당사 이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각 안건별 타당성 내지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고 충분한 전문성·경험을 가진 적합한 후보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등 경영상 필요한 안건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안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주주 여러분들이 이를 기초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구분	안건명	제안자/추천인	검토결과
<b>1</b>	<b>제 52 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b>		
1-1	제 52 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1-2	제 52 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0,000 원)	고려아연(주)	찬성
1-3	제 52 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1-3-1	임의적립금 917,695,440,000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1-3-2	임의적립금 392,466,962,000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YPC/영풍/MBK	(철회)
<b>2</b>	<b>정관 일부 변경의 건</b>		

구분	안건명	제안자/추천인	검토결과
2-1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2-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2-3	오기 정정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2-4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2-5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2-6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2-7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2-8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유미개발	찬성
2-9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YPC/영풍/MBK	반대
2-10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YPC/영풍/MBK	반대
2-11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YPC/영풍/MBK	반대
2-12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YPC/영풍/MBK	반대
2-13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YPC/영풍/MBK	찬성
<b>3</b>	<b>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b>		
3-1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3-1-1	이사 5 인 선임의 건	유미개발	찬성
3-1-2	이사 6 인 선임의 건	YPC/영풍/MBK	반대
3-2	집중투표에 따른 이사 5 인 선임의 건 (※제 3-1-1 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상정되며, 제 3-1-1 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		
3-2-1	사내이사 최윤범 선임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3-2-2	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고려아연(주)	찬성
3-2-3	기타비상무이사 Walter McLallen 선임의 건	Crucible JV	찬성
3-2-4	기타비상무이사 박병욱 선임의 건	YPC/영풍/MBK	반대
3-2-5	기타비상무이사 최연석 선임의 건	YPC/영풍/MBK	반대
3-2-6	사외이사 오영 선임의 건	YPC/영풍/MBK	반대
3-2-7	사외이사 최병일 선임의 건	YPC/영풍/MBK	반대
3-2-8	사외이사 이선숙 선임의 건	YPC/영풍/MBK	반대
3-3	집중투표에 따른 이사 6 인 선임의 건 (※제 3-1-2 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상정되며, 제 3-1-2 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		
3-3-1	고려아연, Crucible JV 추천 후보 3 인	고려아연(주) /	찬성

구분	안건명	제안자/추천인	검토결과
~3-3-3	(최윤범, 황덕남, Walter Field McLallen)	Crucible JV	
3-3-4 ~3-3-8	YPC, 영풍, MBK 추천 후보 5 인 (박병욱, 최연석, 오영, 최병일, 이선숙)	YPC/영풍/MBK	반대
4	<b>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보영)</b>	고려아연(주)	찬성
5	<b>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민호)</b> (※제 2-8 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상정되며, 제 2-8 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	고려아연(주)	찬성
6	<b>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 억원)</b>	고려아연(주)	찬성
7	<b>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b>	YPC/영풍/MBK	반대

## 마침글

현재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는 Project Crucible 은 단순한 해외 투자를 넘어서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기술과 운영 역량을 한 단계 고도화함으로써, 고려아연을 지속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도적 신뢰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고려아연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높은 국제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Project Crucible 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당사의 생산 기반과 전략적 위상, 수익 구조는 한 단계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글로벌 핵심 소재 산업에서 전략적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실행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 경영진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산업 전문성과 운영 경험,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실행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더십의 연속성과 강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Project Crucible 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곧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전략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사는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고려아연은 신중한 투자 판단과 엄격한

자본 관리, 책임 있는 경영 원칙을 유지하며 Project Crucible 을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새로운 도약에 함께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려 아 연 주 식 회 사

회 장 최 윤 범

